

예 배 WORSHIP

March 10, 2019 11:30 a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하나님 앞으로	시역과 행사 안내
	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구은광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고린도전서 6:12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참 자유란?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찬송 268장 /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small>(통일찬송 202장)</small>
	현신과 나눔 봉 헌 / 최선운 집사, 유덕하 집사 *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삶과 세상으로 *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 축 도 / 김성배 목사

〈*표는 모두 일어 섭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음과 묵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요찬양예배

8:00 pm

기도 : 김훈테 집사
말씀 : 김성배 목사 / 출애굽기 8:1-15
여호와의 말씀에

묵상에세이

우리 모두는 쉬지 않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과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과거와 맞닿아 있죠. 그리고 미래가 다가옵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후회와 아쉬움을 남기고 현재는 긴장감을 주며 미래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줍니다.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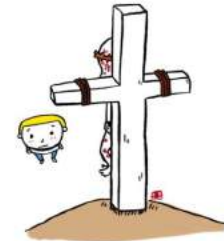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과거는 주님의 자비에 맡기고 현재는 주님의 사랑에 맡기고 미래는 주님의 섭리에 맡겨라."

우리가 시간을 바르게 사용하고 시간 속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됩니다.

지나간 시간의 아픔과 연약함은 모두 주님의 자비에 맡기십시오.
주님이 모두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현재의 시간 속에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을 누리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할 용기와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미래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기대하세요. 이를 통해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과 맞서 꿈을 펼치세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도우실 것입니다. - 홍용희 목사 -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뭇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8-9



나를동한분
너를구한분
그위대하신분
하나님한분

환 주간의 기도

"주님, 행하는 믿음과 절제하는 미덕이 필요합니다. 잘 믿고 싶다고, 더 사랑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상대방이 원하는 작은 것을 해주기 인색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무슨 믿음이고 사랑일까요. 저의 시간, 저의 물결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을 더 긴밀히 만나게 도와주세요."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MISSION PASTOR 정종렬 목사
CHILDREN'S MINISTER 고순제 전도사
장영현 전도사
YOUTH MINISTER SAGAR 전도사



(미래는 믿을 수 없지만) "미래는 믿을 수 없지만, 나는 믿는다. 그리고 나는 믿는다. 그리고 나는 믿는다."

교회와사역

사순절, 유래와 의미

3월 6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이다. 그리고 이날부터 부활절인 오는 4월 21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을 기독교에서는 '사순절(Lent)'이라 부른다. 사순절(四旬節)의 명칭 자체가 '40 일(라틴어로 quadragesima)'이라는 뜻이다.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절 새벽에 세례가 베풀어졌고, 세례 예비자들이 '회개'를 통해 세례를 준비하던 기간이 40일이었다. 이미 세례를 받은 신자들도 자신들이 받은 세례를 되돌아보고 자신을 갱신하는 일에 힘썼던 기간이다.

재의 수요일과 부활절은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공식화했다. 기독교에서 '40 일'은 상징적인 숫자이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40일을 상징하기도 한다. 모세는 40일 금식으로 기도했고, 예수님도 부활 후 40일간 제자들과 함께하셨다. 각 교회에서는 사순절을 맞아 '40일 새벽기도회'를 실시하기도 한다.

성도들은 사순절 기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하신 예수님의 수난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나의 필요를 구하기보다는 예수님이 가신 희생의 길을 묵상하며 그 분께서 가신 길을 우리도 따르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재의 수요일 Ash Wednesday

사순절 첫날은 항상 수요일이라, 교회는 이를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 또는 '참회의 수요일'이라 부른다. 이렇게 불린 것은 이날 예배에서 재(Ash)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재의 수요일은 인간의 죄와 유한성, 인생의 무상함을 분명히 인식하고 기억해 하나님의 용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갈 것을 깨우친다. '재'는 참회와 회개, 유한성, 정확와 순수, 농경문화에서는 새로운 생명과 성장을 위한 밑거름 등을 의미한다.

사순절의 시작, 주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최초의 교회에서는 부활절 전 하루나 이틀을 금식함으로써 부활주일을 준비했으나, 곧 부활절 전 한 주간을 통째로 거룩하게 지키는 관습이 생겨났다. 이후 후 한 주간이 3주간으로 길어졌고, 325년 니케아 공의회 이후 최종적으로 6주간 40일로 정해졌다. 특히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은 부활절 준비의 절정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서방교회에서는 이를 '성 주간(Holy Week)', 동방교회에서는 '성 대주간(Great Week)'이라 불렀다.

사순절의 주제는 예수님의 고난과 이를 대하는 성도의 참회를 뚜렷하게 하는 것들로 채워진다. 전통적으로 사순절 주제는 **첫째 주**에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유혹**을 생각하고, **둘째 주**는 **죄를 물리치**라는 명령을 생각한다. **셋째 주**는 회개로의 요청을 묵상하고, **넷째 주**는 **치유와 회심**을 생각한다. 이 주일은 회개에서 그리스도의 치유 능력으로 바뀌는 의미를 강조한다. **다섯째 주**일은 **종려주일**로 부활절을 미리 맛보는 주일이다. 직전 한 주일은 '고난주간'로 기념한다.

전통적으로 이 기간(Lent)에 과자, 탄산 음료, 설탕, 초콜릿, 고기 등을 금식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TV 시청 등 미디어 금식을 '즐거움'을 포기한다. 최근에는 포기해야 할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봉사활동이나 다른 이들에게 자원을 베푸는 것에 초점을 두기도 하여 '장기기증 캠페인', '북한 돕기 모금' 등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있다.



- 크리스천 루터 2019, 3.6. 참조 -

사순절 기간은 기도/절제/헌신의 삶에 힘써야 한다. 보라색은 고통과 애도를 상징함과 아울러 고대 로마에서는 왕족의 색이기도 해서 부활과 주권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3월은 "현신의 달"입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하나님께 주심 축복을 바라보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전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1. 금주는 믿음의 성장과 신앙생활의 성숙을 추구하는 주간입니다.
2. 사순절 기간이며 다음 주일에는 성찬예식이 있습니다. 기도와 묵상으로 준비합시다.
3. 팀사역 세미나: 팀사역이란? (12 주과정 / 인도- 김윤경 사모)
4. WOW 모임이 매주 토요일 오전 11:00 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5. 교회와 성도,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노환과 질병으로 투병중인 부모님과 가족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6. 오늘부터 Daylight Saving Time 이 시작합니다. 은혜롭게 시간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7. 신년 심방 원하는 심방 날짜를 교우사역위원회에 알려주십시오.
8. 선교사 목사 부부 초청 찬양집회와 여성 회복 세미나를 계획하고있습니다. 5/17-19 기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9. 유초등부 교육전도사/교사 청빙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이달의 생일 축하 / 김성배(3.2) 김윤경(3.11) 홍은영(3.19)

예배와 양육, 말씀과 기도, 교제와 나눔, 세상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축복된 교회, 건강하게 성장하는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제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2.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눈)의 빠른 치유를 위해
3.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4.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5.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6. 주중 성경연구(소선지서/에스라/느헤미야/부흥강의들)를 위해

	3/3	3/10	3/17	3/24
주일예배기도	정홍렬목사	구은강집사	최내권집사	장영현전도사
금요일예배기도	3/8	3/15	3/22	3/29
	구민집사	김훈태집사	구은강집사	박진성집사
주일헌금위원	3/3	3/10	3/17	3/24
	유덕하집사/최선운집사	홍현근집사/구은강집사		
주일안내위원	3월			
	김훈태집사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 / 고린도전서 4:17-21

다이너마이트가 많은 배들이 파선하던 Hell Gate 의 암초들을 다 터뜨려 없앴듯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삶의 문제들 해결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 수사학, 철학과 같은 학문이 아닌 오직 능력에 있다. 예수님이 보여 주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죄 용서, 죽음으로 부터의 승리,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사탄은 교묘한 방법으로 성도를 시험에 빠지게 하여 하나님나라를 잊도록 만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다스리신다. 이를 믿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서 부활과 영생의 확신을 가지며 평안을 누리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누리야할 참 자유란? / 고린도전서 6:12

우리는 지금 어떤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죄와 율법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참 자유를 누리려면,

사랑과 섬김으로 스스로를 제한해야 합니다.

자유를 남용하면 방종의 노예가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란 귀한 값이 지불되고 얻은 자유를 제대로 누리시다.

그리스도인이 누리야할 참 자유란? / 고린도전서 6:12

오늘은 참 자유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원리를 살펴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최고의 자유는 죄와 율법에서의 해방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또한 우리의 능력으로는 모든 율법을 다 준행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율법 아래서는 자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율법 아래서는 율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책망하며, 자신을 더욱 율법에 몰아매곤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복음 아래에 있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자유와 관련하여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를 오해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분쟁이나 음행과 같은 죄를 짓고도 뉘그러했습니다.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 하니 이런 죄를 지어도 문제가 안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심각한 방종입니다. 이에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가 어떤 것인지 다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참된 자유를 어떻게 누리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12 말씀에서 자유에 대한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진리입니다. 바울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도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하면 자유를 누린다 한들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왜 자신의 자유를 버리고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습니까?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사랑과 섬김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바울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 스스로가 사랑과 섬김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한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 수 있는 자유를 누렸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진리는 우리가 자유를 남용하면 결국은 방종의 노예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슨 일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 어떤 것에도 지배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해보면, 무슨 일이든 마음대로 하다가 무언가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내포합니다.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것들은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술과 오락, 돈과 명예, 권세와 성공 같은 것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절제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추구하다보면, 이런 것들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바울이 무슨 일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 어떤 것에도 지배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은 절제가 따르는 자유를 말합니다. 절제하지 않고 자유를 남용할 경우 우리는 자유를 누리기는커녕 정반대로 지배당하게 됩니다. 자유를 빼앗기게 됩니다.

자유는 마치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조심해서 다루어야 합니다. 잘못 쓰다 가는 우리가 다칠 수 있습니다. 고린도의 성도가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무슨 일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 어떤 것에도 지배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자유를 누리되 제대로 누리야 합니다. 스스로 제한할 때는 제한하고, 절제할 때는 절제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자유로 더욱 풍성하고 의미있는 인생을 사는 성도가 됩시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내 역사가 잘 될 것이 내가 범사에 참되고 기쁘게하기를 간구하도라”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

치유, 회복, 나눔

March 10, 2019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 주 일 예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 주 일 학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15 AM
-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 성경공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60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www.churchofservant.com

헌신의 달 만남과 나눔의 주간

- 꿈이 있는 교회
- 섬김이 있는 교회
-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골4:13

